

도교육청-도내의원 교육발전 협력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정책 간담회' ... 현안 문제 해결방안 등 논의

전북교육청과 도내 국회의원들이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교육청의 당면 과제를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진과 안호영(안주진안 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성주(전주병)·신영대(군산)·김수홍(익산갑)·한병도(익산을)·윤준병(정읍교청)·이원택(김제부안)·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참석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인사발령을 통해 "전북교육정책과 교육 현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국회의원들께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지만 전북지역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전주 에코시티 제2중학교 신설, 전북교육발물관 건립, 농어촌 교육 활성화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화 등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교육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면서 "전북 출신 의원 중에 교육의 의원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힘을 모아 간다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용호 의원은 "교육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개선하고,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소모적인 곳에 힘을 쏟지 않도록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교육은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대도시지역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인프라 시설의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읍 고창지역 폐교를 다른 시설로 전환하거나 귀농귀촌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수홍 의원은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토론이 현장에서 필요하다"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북에서부터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전북교육발물관은 시대에 맞게,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택 의원은 "인구감소가 지역 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 인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무엇인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면서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청과 교육지원청 간에 협력체계를 갖추고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은성기자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 전문대학생 학습방법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이 홍순직총장, 김영임 교수학습개발센터장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문대 학습방법 경진대회 '씩쓸이'

전주비전대, 8명 수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전국 전문대학생 학습방법 경진대회'에 참가 우수 실력으로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전주비전대학교는 'UCC 크리에이트' 부문에서 유아교육학과 김서연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에세이' 부문에서는 간호학부 장희선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8명이 우수상(2명) 및 장려상(6명)을 수상했다. UCC 크리에이트 부문의 경우 59개 대학에서 252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자기주도 학습에세이' 부문은 71개 대학에서 992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UCC 크리에이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김서연 학생은 '브이로그' 형식으로 그림그리기 등 자신만의 일상과 학습방법을 소개했고, 자기주도학습에세이 부문 우수상을 받은 장희선 학생은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처음 접하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 'to do list' 작성법 등 자기만의 학습노하우를 담아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미연과 유학생인 생림(IT융합시스템과)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세이 장려상 수상은 주목할 만하다.

생림 학생은 "우리 대학 학습공모전을 통해 나만의 학습법을 공유하고 싶어 참가했는데 경진대회에 출품해 상까지 받아 한국에서 공부한 보람이 느껴져 정말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장은성기자

전북대, 사상 첫 온라인 졸업작품전 탄생

주거환경학과 39명 참여...주택 디자인 등 아이디어 눈길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4학년 학생들이 사상 처음 온라인 졸업작품전을 탄생시켰다. 임동혁 학생(졸업작품위원장)을 비롯한 39명의 학생과 최병숙 지도교수 등 학과 교수들이 6개월 간의 노력 끝에 만든 결과다.

전시 주제는 'BORN', 시작을 뜻하는 본 태어남의 born, 그리고 시작적 의미의 본, 학생 각각의 시선을 담은 공간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만들어 낸 온라인 전시공간(<http://www.jnu-housing.com>)에서

주택 24작품과 비주택 15작품의 설계 도면과 활용 방안, 모형도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2차인 28일 오픈해 1년 간 시공간을 초월해 누구나 작품을 볼 수 있다.

내년, 내후년 열릴 전시 역시 이번엔 만들어진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전시를 병행할 계획도 잡았다. 이번 전시의 주제 'BORN'처럼 온라인이라는 졸업작품전 형식도 이들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는 역사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본디 졸업작품전을 준비하는 학생들

은 매일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지도교수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작품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한계로 인해 이 모든 준비 과정은 온라인 화상을 통한 소통으로 이뤄졌다. 열심히 열정을 불태운 학생들과 함께 이들의 작품을 수개월에 걸쳐 한 명 한 명 검토하고 수정했던 최병숙 교수를 비롯한 주거환경학과 교수들도 새로운 형식의 졸업작품전을 만든 주역이다.

전시에 참여한 이채린 학생은 "오프라인 전시를 준비하다 온라인 전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어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열

고나니 더 많은 이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고 취업 준비의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좋다"며 "교수님과 친구들 모두 10주년 졸업작품전이라 특별하게 준비하고자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더욱 특별한 전시가 된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병숙 지도교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로 온라인을 이용한 화상크리타라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고 우려감도 매우 컸으나 학생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의 작품을 완성해냈다"며 "졸업작품전을 완성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매우 성장했을 것이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예비창업자 창업 지원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조광수)은 '창업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지난 5월과 6월 세 번의 실전창업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미만의 초기 및 예비창업자 30팀을 대상으로 IP창업 기초교육과 사

업계획서 작성, 그룹 멘토링 등 다채로운 교육을 진행,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번에도 역시 유망 창업아이템이나 특허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10명을 오는 7월 1일까지 모집한다. 이후 서류심사와 비대면 사전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참여할 창업자를 선정하고 7월 6일부터 14일까지 다양한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대입 아카데미로 진학지도 역량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일 반계 고교 교사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북대 사범대 교육연수원에서 매주 토요일(오전 4시 간) 일반계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대입 아카데미 기본반과 심화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반은 진학지도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교사 현황 대입제도 및 전형

정보가 부족한 교사, 체계적인 대입 진학지도 방법을 알고자 하는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대입전형의 변화와 고등학교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와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심화반은 2020년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또는 5년 이내 지원단 유경험자, 최근 5년 이내 일반계 고3 진학부장 또는 담임교사 유경험자, 최근 5년 이내 일반계 고2 담임교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장은성기자

/장은성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